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민주당 내부 '신중론'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통과 위해 민주당 협조 반드시 필요 민주당 내부, 긍정 평가도 나오지만 신중론도... "체급만 올려줄 수도"



조국혁신당이 22대 개원과 동시에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다시 소환해 정치적 체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해 대선 주자로 만들 어준 사례도 언급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논의해야 하고,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리다"고 했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 3월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1호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말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우선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또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사

건도 들여다 본다든 계획이다. 아울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딸 논문대필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12석을 얻었지만, 원내에서 독자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력할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고 양당이 함께 통과시켜야 할 법안의 공조 방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한동훈 특검법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낼 것이다. 그럼 저희가 검토하고 연대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만약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정치권 밖으로 사라진 한 전 위원장을 다시 중앙 무대로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며 "특검법으로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여전히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점도 부담이다. 특검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를 버티며 대권 주자로 성장한 선례가 아직 뼈아프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혁신당과의 협력 관계는 맞지만 모든 법안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동훈 특검법 논의가 시작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민주, 입맛대로 민의 해석...의회독재 시즌2?"

국민의힘 "정쟁용 법안...공수처 조사 부정"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 2일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의회 독재 시즌2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해 '민생부터 챙기라'는 준엄한 국민 목소리를 왜곡하고 입맛대로 해석하며, 또다시 당리당략 정쟁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5월2일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에 붙여진 채상병 특검법과 야당이 단독 직회부했던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의 조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모두 한치만 더 들어

다보면 미래세대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쉬운 정치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 추진에 대한 당 대응 방안이 정해졌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계속 정쟁용 법안을 끌고나가선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해 써야 할 민의의 시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협의해야 할 구체적인 민생법안을 두고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물가안정, 청년 주택문제,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굉장히 많다"며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다 돈으로 해결하자는 건 결국 미래세대 주머니를 강탈해 현재의 문제를 막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슬비기자

이재명·조국 '고량주 회동'에...전여옥 "영수증 공개해라"

"윤 대통령더러 술 먹지 말라며 자기들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연태 고량주를 마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연태고량주도 M 식당 같은 곳에서 마시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윤석열 대통령보고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저렇게 창문이 환한 시간부터 고량주를 퍼마셨다"며 "내로남불 소국맞조"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국 찌질한 것은 익히 알지만 '고량주'가 '연태고량주'면 OK?"

나 같으면 영수증을 차 올리겠다"라며 "소셜미디어 계정에 조철봉 사진도 올리면서 이럴 때 계산서 사진을 못 올리라"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식사 정치'를 하며 논란됐던 과거 일화도 언급했다. 그는 "부산 가서 '대선 진로 딱 좋은데' 사진도 올렸지 않나"라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재명 대표도 계양에서 '삼겹살' 먹었다고 해놓고 석외 불판에다 그 앞에 '한우고기' 딱하니 있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과와 전적이 있어서 언론사도 기사 쓴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좀 그만해요. 징그러워요"라고 전했다.

전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6일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방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뉴스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